

광주 상무지구 1조5790억 투입 '도심융합특구' 개발

市, 85만2693㎡에 일자리·주거·여가 복합 개발...2031년 완료 목표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기대

광주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도심 속 '직주락' (직장·주거·여가) 복합 개발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 개발 사업이다.

법정부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 사용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지난 6일 광주시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상무지구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광주시청이 있는 상무지구 도심과 가까운 산·학·연 연계와 집적화에 유리하고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1조5790억원을 투입해 상무지구 일대를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하고 인근 9만여㎡의 땅에 특구 연계 사업을 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에는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

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구 연계 사업으로는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고 광주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구축도 계획돼 있다.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 내 장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연계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개척, 고용, 금융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종사자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도심융합특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광주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광주 도심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삶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상무지구 일대를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등 특구 지정 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특구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해 오는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가을밤 '빛의 숲' 산책 7일 오후 광주 남구 사직공원 내에 조성된 빛의 숲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위한 법적 기반 강화해야”

전남연구원 'JNI 이슈리포트' 발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1차 이전기관의 출자·산하기관, 지역산업과 밀접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7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법적 동향과 전남 시사점'을 주제로 'JNI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내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하고, 정책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연구팀은 제20·22대 국회 의원발의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안 제·개정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지난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광주와 협력해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에너지 수도, 전남' 비전 실현에 앞장서 혁신거점을 조성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응한 민간 차원의 유치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산업과 경제적 특성에 맞춰 전남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역 특성과 관련성이 높고 규모 있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 1차 이전에서 제외된 금융기관, 중앙회 등의 전남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희 선임연구위원과 우현민 연구원은 "전남은 광주와 협력해 정부 로드맵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1차 이전기관의 4대 특화분야(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와 연계사업 창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지역 대표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과 지원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안일한 행정에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수기 의원, 7·10공구 입찰 무산 질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 탓에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핵심 구간인 일부 공구 입찰이 무산돼 준공 기한이 불투명해져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수기(민주·광산구5) 의원은 7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의 7·10공구 입찰 무산은 현실적으로 설계 비용 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유찰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인 7·10공구는 지난해부터 다섯번 유찰됐으며 수의계약 역시 실패했다.

박 의원은 "공사 금액 변동이 없으니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다"며

"결국 지하철 개통은 1년 지연됐다. 시민들께 상황을 공개하고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은 민원 건수로도 확인되고 있다. 임미란(민주·남구2) 의원에 따르면 북공공 관련 민원은 2020년 117건, 2021년 520건, 2022년 581건, 2023년 594건, 올해 9월 기준 5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7·10공구에 대한 보완 설계 후 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 재입찰을 할 예정이다. 설계 변경만 최소 1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초 2030년 완전 개통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 아동그룹홈 34곳 중 5곳은 'C등급'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미정 "등급 낮을수록 환경 열악 그룹홈에 혈세 63억 운영비 투입 보호 체계·사각지대 점검 필요"

광주지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7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위해 보호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양육과 함께 아동의 자립을 지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평가 지침에 따라 광주시가 3년마다 하는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광주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C등급 이하를 받았다. 3개소는 C등급, 2개소는 D등급이다.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보호 대상 아동이 편히 지낼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광주시 5개 자치구 주관 그룹홈 지도 점검에서는 2022년 즉시 개선 22건, 행정지도 9건, 시정 6건, 주의 15건의 결과를 받았다. 2023년에는 시정·즉시조치·권고 3건,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아동 그룹홈에 63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보호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와 자치구 간 협업을 통해 보호시설의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30로 36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